

세상의 틀을 바꾼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1:3-16, 마태 복음 24:15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세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체질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평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는 다니엘서 성경 본문을 읽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순종 하셔서, 다니엘서 1장을 읽고 그 후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한다.(웃음) 채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후로도 훈련 받은 후에 다니엘은 소갈비, 닭갈비 많이 먹었을 것 같다.(웃음) 우상제물이었기 때문에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고백했다. 뜻을 정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다. 아버지와 삼촌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작심삼일이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담배 끊으려 뜻을 정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냥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민족사 앞에서 이들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이었다. 포로 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찬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것이다. 이러한 한 담만 있어도 우리 민족을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을 믿는다.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였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나이를 계산해봤더니 13살 정도에 왕 앞에 서게 되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린 그 나이에, 변함없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봤더니 그 앞에 성경책을 두고 성물을 하고 있더라. 가장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 부모님, 할아버지가 서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 그 뒤에 서 있던 부모님, 할아버지는 다 암송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도 어린아이들은 관광객인 우리를 쳐다보면서 손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성경을 외운다. 다음 주부터 비전스쿨에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한다.(웃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 두꺼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측은 상황인데,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 외우는 것이다. 이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루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았는가. 아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부모님은 전쟁 중에 처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암송을 했을 것 같다. 생각해 보라. 3년 동안 거기서 온갖 이방인의 훈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학문이 대단하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있는데 배가 수로로 들어와서 궁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어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과 학문이 담겨있다.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고 정복했던 나라가 아닌가. 그 나라의 학문, 언어였다. 그 곳에서 3년을 배운 것이다.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순수하게 ‘아멘’ 하다가, 대학에 가서 세상학문을 경험한 뒤로 교회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무식한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램넛트가 있다. 절대 아니다. 성경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다. 서울대학교에 상담교육과 다니는 램넛트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다 귀신들렸다고 하고, 사단이 어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심리학자, 교육학자 중에서 이렇게 교육하면 최고의 교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절대 없다. 그냥 이리이러한 말이 있다. 라고만 하지 어떤 이론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말 하지 않는다. 프로이드, 에릭슨, 반들라와 같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 하지만, 인본주의적 심리학, 행동주의적인 심리학 평생 어떠한 한 분야만 연구하다가 죽었다.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부 문제, 인간문제, 국가문제가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밖에 없지 않는가. 이야기했다. 인간의 문제, 개인문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밖에 없다.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해결하는가.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것이다. 그 사이에 이러한 일, 저런 일도 있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 뿐이다. 그것은 결론도, 답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니 맞다고 한다. 무슨 말이나면, 세상에 나가면 굉장한 것 같지만 별 것 아니다. 논문 몇 개 쓰고 죽는다. 노벨상 수상자의 논문 1/5이 나중에는 틀린 이론이라고 밝혀졌다. 그 때 당시 그 이론이 맞다고 검증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에는 최고의 석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 전기를 아무리 연구해도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나는 너무 신기하다. 그 전기들이 반도체에 들어가서 컴퓨터 화면이 커지는 게 참 신기하다. 발명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나 만드신 원리를 발견했을 뿐이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기를 축원한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적인 학문을 들었지만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았다.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모든 것을 알고 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되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라고 나와 있다. 다니엘을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응답이 쏟아진 인물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세 나라의 총리를 했었다. 엘리아김은 요시아 왕의 4번째 아들이었다. 원래는 여호야김이었는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름을 바꾸었다. 여호야아스 왕이 똑똑하나가 첫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몇 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의 왕들이 있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아직 덜 망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 오래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때 당시 왕은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너희들이 이리다가는 멸망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쓴 것이다. 그것을 달달 외운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된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 애굽, 앗수르, 바벨론에게 당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 나라와 왕이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총리를 하게 되지 않는가. 그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을 일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시작과 끝까지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남유다 왕국은 말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에 걸쳐 침략을 당했다. 그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BC.605년의 첫 번째 침공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다니엘은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온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인, BC.538년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메데, 바사. 나중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컸는데 바사가 정복했다.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후에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한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다니엘이 13살에 끌려왔다면 16세에 왕 앞에 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67년 후인 BC.538년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했다면 거의 80세 이상 산 것이다. 그 때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1차 침공 때는 무너지지 않았다. 2차, 3차 침공인 BC.586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을 파괴했다. 그 후로 약 70년이 지난 후, BC.516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유다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던 것과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 세상이 틀과 모든 준비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것이다. 세상의 틀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었지만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가문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에 있길 축원한다. 이것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1. 북 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남 왕국 유다백성이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도에 삼촌이 명절이 되면 부흥회를 해달라고 가끔 이야기하신다. 명절 때 친인척이 오냐고 물어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후대들이 완전히 멸족된다. 전혀 반대이다. 믿음 안에 살면 우리가 언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90세 넘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그런데 반대로 하시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도 있는데요. 아니다. 점점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경험한 사람만 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오직 예수 한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램넛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성경을 보고 인생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한다. 그 고생하고, 허송세월하고, 나중에 와서는 ‘그때 맞았어.’하면 안 된다.

(1) 그들은 하나님이나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니 ‘내가 말해도 너희는 몰라. 못 알아들을 거야.’ 비꼬는 것이다. 왜 그러셨는가. 이들은 이사와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와 같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나와 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지혜를 받아야 한다. 인생을 보면 인간은 희망이 없다. 학교,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나 자신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오직 예수의 길을 갈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생각해 볼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맞을까? 인간이 무엇을 깨닫는가?’ 아무리 깨달아도 안 될 것 같다. 108번 뇌에 대한 책을 봤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가 108개의 번뇌라는 것이다. 그리고 108번 번뇌 외에 수천가지 문제를 연구했다. 여러분, 답을 못 얻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냥 교회 다니면 성도들이 자기 동기, 집안의 문제, 돈을 생각하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해야 한다. 당연히 오직 예수가 맞다. 어거스틴이 말했다. 원죄의 근본은 교만이라고. 여러분이 교만한 만한 훌륭한 인간인가? 아니다. 나를 비관하더라고 ‘맞아.’ 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야 한다. 나는 옳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덜 바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배드릴 때 집중 안 한다. 예배 집중하면 내가 좋은 신앙 가질까봐(웃음) 그런 분 많다. 봉사도 해야 하고, 교사도 해야 하고 식당 헌신도 해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한다.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집중 안 하는 것이다. 참 똑똑하다.(웃음)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떤 믿음 좋은 성도들의 1부 예배 때 눈을 보니까 ‘왜 집중 안해요?’

하는 눈빛이다. 부모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 하면 듣지 않는다. 들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어. 하면 듣지 않는다. 축복되고 좋은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이다. 예배에 집중하라. 신앙생활에 집중해보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대중 신앙 생활하지 말라. 그것이 해방과 자유이다. 적당히 하는 것을 깨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왜 그 정도만 하려고 하는가? 이 틀을 깨지 못하면 3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어른들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램넌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2) 유대인들의 문제는 복음이 증거되야 할 성전에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양의 언약의 피, 이 복음만 증거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리싸움하고 주장하고 율법을 강조한다. 그것은 다 틀린 것이다. 방언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며, 찬양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며,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본인이 하면 된다. 틀린 사람들은 계속 틀린 생각만 한다. 불만, 불평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천국이 왜 이래.’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옥 보낼 수도 없고 하나님도 참 할말 올라가실 것이다.(웃음)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란다. 바꾸기를 바란다.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해한다. 싸워라. 그 시작이 강단메시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해방이 있다. 사람도 싫어한다. 다 손가락질한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3)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드리면서 악한 백성을 착취하고, 제사도 드리며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켰으며 불의와 악행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사가 선지자는 이사가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다.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평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 복음보다 봉사, 복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속사람이 변하면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는다. 학교를 다니면서 악한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 삼았다. 왕따 시키는 친구에게 ‘그러지 마’ 한 마디 하면 안 한다. 친구가 두 명 있었는데 아주 잘난 친구 한명 옆에 앉았다. 조금 어려운 친구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학교 문제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책임을 쥐는 램넌트들이 되기를 바란다.

(4)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BC.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여호야김 왕 때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의해 세 번이나 침공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 전쟁도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깊이 생각했던 인물이 4명의 청소원 램넌트였다. 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과 변함이 없다. 오히려 늙어가면서 조금 타락하고 이상해졌고, 그 때 믿음이 좋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다 알았다. 무슨 유치원생이라서 예배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의 아이들을 보면 식당에서 제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빨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막 떠들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교육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이야기해줘서 설득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기도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 때부터 엘리트 기질을 만들기를 바란다. 초등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어른이 되어서도 저질렀다. 안 변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엘리트가 지금도 엘리트인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바뀌어야 한다.

2.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시대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을까?

(1) 아시아와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 선지자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영혼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만큼 묵상했던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던 증거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무슨 말인가. 다니엘은 분명히 예레미야의 책을 깨달을 정도로 깊이 읽은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성경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다. 초등학교 때 매주 요절 암송을 했고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었다. 은혜 안 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묵사 되어서 설교 준비하면 깨달을 때도 있지만 은혜 안 될 때도 있다. 그 때는 순수하게 끝과 송이끝보다도 성경이 더 달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 초등학교생, 중학생이 절대 철없는 수준이 아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세요경과 특히,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음식은 먼저 우왕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골수 같이 지혜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어떤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다. 다니엘 1장 12절 서두에 보면 ‘청하오니’ 하고 설명한다. 환관장이 ‘너희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이야기하니까 ‘10일 동안 채식하도록 한 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정확하게 잘 알려진 것만 먹기를 바란다. 그것이 깊은 음식이다. 그리고 조금 먹으면 된다. 그리고 깊은 삶, 여유 있게 살기를 바란다. 깊은 운동도 해보라.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춰야지 바른 운동, 건강법인 것이다. 영성도 그러한 것이다. 합리적일 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다니엘도 이야기하되, 설득력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 묵상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 목 달아날 수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승리했어. 끝나면 통닭 먹으러 가자.’ 했을 것이다.(웃음)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다.

(2)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3)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잡혀먹힐 지라도 3오늘과 1일3작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1일 3작하라고 했더니 ‘세 번 정시기도 어떻게 해요?’ 한다. 어제 대학청년부 미션홈에서 1일 10작을 하는 것 같다. 아침 8시, 9시, 10시. 정시에 5분 묵상한다. A4용지에 묵상내용이 꼭 찬다고 한다. 1일 24시인 것이다. 5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속지 않는다고 포럼하더라. ‘대단하다. 정말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응답을 받는구나.’ 생각했다.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이러한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을 틀을 바꾸는 응답의 주역이 되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없다. 한 번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표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CVDIP가 분명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응답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CVDIP는 명확하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였지만 3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모두 지도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와 언약을 24시간 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내셨다.

2. With, Immanuel, Oneness의 축복을 사실적이면서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을 정도로 체험했고 실천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단순히 유대왕국의 회복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가. 느부갓네살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신상에 대한 꿈이었다. 머리는 금, 못, 철이며 진흙이었는데 돌이 날아와서 깨트린 것이다. 머리는 바벨론, 양팔과 가슴은 메대 바사, 못은 그리스, 열 발가락은 로마. 그 인류 역사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뜨인 돌, 그리스도가 와서 깨트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본 것이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는가. ‘살아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야 해.’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순교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3.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7배나 뜨겁게 끓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을 죽이고 삼킬 수 없음을 믿기를 바란다. 언약만 붙잡으라.

4. 다니엘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이고, 7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수 천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과 메대 바사와 페르시아, 로마, 말세지말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모든 예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5.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전 세계와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축복을 받았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중간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있다. 12장 1절 중간에 보면 말세를 말한다.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책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요절은 12장 3절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런데 잠언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참된 지혜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 나는 중간에 말을 넣고 싶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차와 비행기로 빨리 왕래하는 것 같다. 빅데이터와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을 더하리라. 지금 이 때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과 이 세상의 틀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만큼 그리스도로 결론 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삶도, 세상, 바벨론, 앗수르에 포로, 노예, 속국된 삶과 진배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세상에 속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복음 안에서 뜻을 정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받은 응답을 증언할 만큼 넘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